학술대회 후기

2024 한국섬유공학회, 한국염색가공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를 마치고

정재우 수석학술이사 (숭실대학교)

2024년도 한국섬유공학회, 한국염색가공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가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는 총 282편(기조강연 1편, 신진학술상 수상기념강연 1편, 특별초청강좌 1편, 초청강연 37편, 구두 14편, 우수구두 12편, 우수포스터 13편, 포스터 20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83개 기관에서 총 527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모로 국내 정상급 학술대회로 발돋움한 한국섬유공학회는 섬유뿐만 아니라 유기/무기/복합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 내용을 선보였으며 회원 간의 끈끈한 친목의 장도 잘 마련되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성했던 학술대회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1일 차에서는 그린모빌리티융합소재 세션과 섬유소재 및 제조공정 설계 시각화 세션이 열렸습니다. 그린모빌리티융합소재 세션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을 중심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미래 에어모빌리티 구조용 소재/부품 경량화 플랫폼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고, 섬유소재 및 제조공정 설계 시각화 세션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단국대학교 이병선 교수님이 강연자로 수고해 주신 가운데 연구 내용을 디자인적으로 상향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지닌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었습니다.

학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일차에는 한국섬유공학회 춘계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안건 승인을 받았고, 제51회 학회상 시상식도 거행되었습니다. 공로상은 제40대 한국섬유공학회 회장으로서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숭실대학교 정영진 전임 회장님께서 수상하셨고, 학회 창립 6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장으로서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여하신 공로가 큰 인하대학교 전한용 교수님께도 감사의 공로패가 전달되었습니다. 제40대 전임 총무이사님이셨던 단국대학교 이정진 교수님께는 그간의 한국섬유공학회를 위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자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학술상은 경북대학교 김태경 교수님께서 받으셨고, 기술상은 FITI시험연구원 김동환 본부장,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윤석한 PD, 남양부직포(주) 윤영현 소장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학회상을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국내 섬유공학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후원해 주신 기업들에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춘계정기총회 후에는 전북대학교 유기소재파이버공학과 김학용 교수님의 기조강연이 이루어졌습니다. 2축 방향으로 신축성을 보유한 전고체 슈퍼캐퍼시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셨고, 기술 현안이라든지 연구 동향뿐만 아니라 평생을 몸 바쳐 연구해오신 슈퍼캐퍼시터 기술 개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조강연 후 차세대전자재료 및 미래에너지, 국방신소재, 나노하이브리드 및 복합소재, 바이오메디컬융합 및 지속가능소재, 고성능산업소재, 섬유고분자재료·공정,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세션이 열렸고, 초청된 연사분들을 통해 관련 분야 최첨단 소재기술에 대한 초청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특별세션으로 열린 국방신소재 세션은 세션장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회원들

이 참석하여 본 세션에 대한 회원들의 큰 관심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두발표 이후 포스터발표도 진행되었습니다. 포스터 세션에서는 우수포스터발표 경진대회가 함께 이루어졌는데 회원들이 포스터 발표장을 돌아다니며 서로의 연구에 대해 묻고 답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가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수포스터발표 경진대회는 박재희(경북대)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김성진(전북대), 김한음(전남대), 박민선(단국대), 박예은(동아대), 정찬희(충남대) 학생들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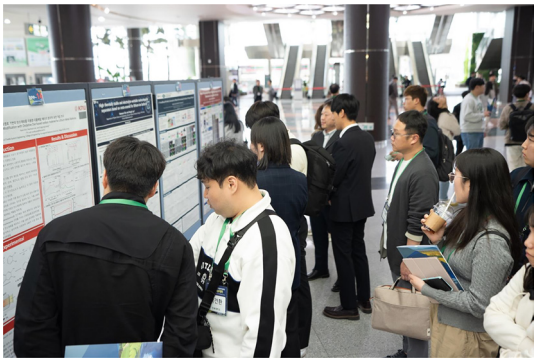
2일차 마지막은 간친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학회에 참석한 많은 회원들과 초청연사들이 바깥으로 보이는 제주 바다의 석양 노을을 보며 편안한 마음으로 와인잔을 기울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섬유공학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 간친회 때 일일이 한분 한분 소개해드리기 어려웠는데 본 지면을 빌어 여건이 충분치 못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부디 다음 추계학술대회 때도 모두 뵙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일차에는 단국대학교 파이버시스템공학과 이원준 교수님이 신진학술상수상 기념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나노재료 동적 조립의 섬유 응용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주셨고 다양한 기능을 지닌 섬유소재 기술을 보며 이원준 교수님의 탁월한 연구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신진학술상수상 기념 강연 후에는 웨어러블공학, 디지털전환, 가상공학 및 섬유고분자기능화·가공 등 다양한 세션에서 발표가 이루어졌고 우수구두발표 경진대회도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섬유공학회의 미래후속학문세대인 학생들이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멋진 발표를 해준 가운데 최민주(경북대) 학생이 최우수상을, 민동주(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송진우(인하대), 양세준(서울대)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연구발표뿐만 아니라 다이텍연구원 씨앗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 간에 미팅도 이루어졌고, 새로 조직된 3개의 분과(지속가능소재분과, 복합소재분과, 스마트소재분과)들이 각각 모여 첫 모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첫 분과모임이어서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함께 점심 먹으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더욱 친밀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구축 기술/성과포럼도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회 회원들에게 다가갔던 2024년 춘계공동학술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섬유공학회가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학회로 자기매김 하길 기대하며 추계학회는 보다 성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24년 춘계공동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학회 임원분들과 사무국 직원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학회 회원 모든 분들께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춘계정기총회 학회상 수상자
(좌측부터 윤석한 PD, 윤영현 소장, 김태경 교수, 전한용 60주년 준비위원장, 정영진 제40대 회장, 이택승 제41대 회장, 김동환 본부장, 이정진 교수)



포스터 발표장의 뜨거운 열기

다양한 세션에서 이뤄진 초청강연